



이우혁이 그리는 우리나라 최고 영웅 이야기

2002년 한반도 남쪽의 여름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그 붉은 물결 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던 도깨비 깃발, 붉은악마의 '치우천왕기蚩尤天王旗'는 한국 축구의 역동성과 승리를 상징했다.

“붉은악마가 치우천왕 깃발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치우蚩尤가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우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집필 계획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다음에 쓸 작품을 미리미리 구상하는 스타일 이거든요. 치우천왕 모티프를 얻게 된 건 《퇴마록》 쓰면서 부터였고, 그때 우리 민족사의 최고 영웅은 치우일 거다 생각했었죠. 재야 사학자들 책도 보면서 검증은 해봤는데 검증이 되더군요. 자취가 뚜렷해요.”

들녘에서 빠르면 4월중에 선보일 《치우천왕기》(전 5권 예정)는 오래 전부터 구상했다고 밝힐 만큼 작가 이우혁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작품. 붉은악마 홈페이지의 치우천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치우천왕은 환인이 다스리던 환국의 뒤를 이어 환웅천왕이 건국했다고 하는 배달국倍達國의 제 14대 천왕으로, 한단고기桓檀古記 삼성기편에 의하면 BC 2707년에 즉위하여 109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다. 다른 이름으로 자오지慈烏支 환웅이라고도 하며, 고대 중원에서

군신軍神, 병주兵主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이우혁은 작년 10월 작품을 정리할 겸 중국에 답사를 다녀왔다. 치우 묘라고 알려진 무덤은 현지인들이 밭일을 하며 깎아먹어서 현재 버섯 모양처럼 되어 있단다. 지금도 한 형제가 치우천왕 묘를 지키고 있는데, 그 형제는 조상 대대로 묘를 지키라고 하니까 묘를 지키는 순박한 사람들. 그렇지만 두 명 모두 장가를 못 가 묘지기의 대가 끊기게 됐단다. “치우천왕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처음엔 그의 일대기를 쓰는 게 목적이었지만 일대기를 쓰면 위인전기처럼 되어 판타지적 요소가 없어질 것 같아 앞부분을 자르고 짧어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왜란종결자》를 쓰면서 이우혁은 한국 판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때까지 아무도 안 했었기 때문에 한국 판타지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에 《퇴마록》을 쓸 때만 해도 한국 판타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작품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관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판타지 세계를 동양적, 한국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계획한 것이다.



“한국 판타지라는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이젠 판타지가 아니라고, 자기네가 아는 지식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한국 판타지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기존의 세계를 해체해야 되고…. 아예 없었다면 더 쉬웠을 텐데 기존의 서양관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동양은 윤회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동양인에게 전생관은 빼놓을 수 없죠. 따라서 한생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세계를 만들어야 하고, 영혼이 왜 도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니까 또 현실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예 현실과 연관을 짓고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면을 가상하고 간 겁니다.”

이우혁의 정리에 따르면 “판타지란 현실에 없거나 또는 현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을 있다고 상정하고 일부를 받아들여서 쓰는 것”이다. 판타지를 가볍게 취급하는 시각에 대한 그의 견해 또한 명쾌하다.

“사람들은 보통 판타지를 몇 개 보고 말지요. 예를 들어 보자구요. 일본만화가 그렇게 가벼운가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일본만화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서점에 가서 보면 심하게 말해 쓰레기가 99 퍼센트예요. 그 중의 하나 건지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 좋은 게 있다고 쓰레기가 양산되도록 방치해도 안 되죠.

다른 세계가 하나 추가되면 북돋워주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 독자층이 판타지를 제대로 받아들여려면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독자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타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판타지라고 하면 기사 나오고 마법 쓰고 뭐 이런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인식이 변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지금은 덜하지만 《퇴마록》 발표 당시만 해도 그에 대한 황당한 선입견이 많았다. 60대 노인이라느니 산에서 도를 닦은 사람이라느니 진짜 퇴마사라느니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싫다. 글을 쓰면 글은 글이고, 이우혁은 이우혁이지 절대 글과 자신을 동일

시하지 않는다. 작품과 작가가 섞이지 않고 제 위치를 잡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글이 나온다는 생각이다. 이우혁은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온라인 게임처럼 타인과 함께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6, 7년 전에는 연극에도 직접 출연하고 오페라 연출도 하는 등 그는 한 가지 색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만큼 관심사도 다양하다. 사방으로 뻗친 촉수에 《퇴마록》 같은 작품이 닿은 이유는 시대(?)보다 단순하다.

“《퇴마록》은 그냥 한번 써서 하이텔에 올려본 거예요. 첫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사람들이 본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럭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제 글을 보인다는 게 말이죠. 그 전까지 글짓기로 상도 타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날로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썼어요. 첫회 쓸 때는 정말 마음대로 만들어 쓴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보통 사람들이 귀신 하면 무섭고 귀신은 불멸이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보냐, 처음에는 귀신을 잡는 이야기를 써보자, 귀신은 절대무적이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쓴 겁니다. 술을 한잔 먹고 알뜰뜰한 상태에서 쓴 거죠.”

《치우천왕기》 다음 작품으로 그가 준비중인 책은 소설보다 영화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양들의 침묵〉처럼 현대인의 이상심리를 그린 심리물이다. 이전의 범죄심리를 다룬 책들이 정곡을 못 찌른 것 같아서 진짜 사이코의 세계를 그리고 싶다는 의욕에 사로잡혀 있다. 평상시에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 왜, 어떻게 엽기적인 행각을 하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뚜렷한 동기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자료를 보며 그 자신도 놀라고 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초능력의 세계를 넣어서 작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마무리 할 생각인데, 그가 가장 최근 공들이고 있는 작품으로 한 권짜리 분량이다. **▶▶▶**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